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본 France Toulouse 거주 30대 - 50대 한인여성의 삶

Lives of Korean Women at the Age of thirty - fifty, lived in Toulouse, France,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이문숙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Moun-Souk Yi(tlseyi@iscu.ac.kr)

요약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Toulouse 거주 한인 여성의 삶'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그들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를 재구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자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참여에 동의한 Toulouse 시 중심과 외곽에 거주하는 30 - 50대의 한인 여성으로 전체 10명이다.

연구를 위한 면접에 참여한 여성들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크게 5영역과 13가지 중심개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중심개념으로 Toulouse 한인여성들의 삶을 재구조화 해 그들의 생활을 전망해 보았다.

■ 중심어 : | 질적연구 | 현상학적 접근 | 해외에서의 삶 | 해외거주 | 재외 한국여성의 삶 |

Abstract

This study has the purpose for which we will analyze the lives of Korean women in a foreign country, Toulouse France,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We will address the problems revealed Korean in everyday life and how they overcome their problems.

Participants in this study are a total of ten Korean women who live in Toulouse and around the city, inclu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coming to understand the researcher and who agree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fter analyzing the presentations of the participants, we leaded ahead five areas and 13 important concepts. With these concepts, we will restructure and predict the lives of women Korean-Toulousaines.

■ keyword : | Qualitative Research | Phenomenological Approach | Life Abroad | Living Abroad | Life Korean Women in a Foreign Country |

I. 서 론

한국은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민 송출국이었으나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 이민 수용국으로 변

모했다. 외교통상부의 해외이주통계에 따르면 1990년에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은 23,314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15,307명으로 감소했고 2004년에 29,638명으로 반등했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감소세이다. 반면 국내에 체

접수일자 : 2013년 11월 22일

수정일자 : 2013년 12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3년 12월 20일

교신저자 : 이문숙, e-mail : tlseyi@iscu.ac.kr

류하는 외국인 수는 1990년에 49,507명에서 2008년에는 115만명으로 증가했고 2010년 현재 126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국제이주와 관련한 인구학적, 사회문화적 현상들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을 크게 제고하였고, 그 결과 2000년을 전후로 많은 연구물들이 양산되었다.

재외한인을 둘러싼 국내외 외부환경과 재외한인사회 자체도 크게 변화하였다. 외부 환경의 변화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초국가주의의 확대이다. 과거에는 한민족의 이주의 역사를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설명했던 것이, 이제는 초국가주의의 관점에서 설명해야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1]. 초국가주의가 확대되면서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주, 모국과 거주국 간에 형성된 다양한 네트워크,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혼존하는 다문화가 증가하였다. 현재 재외한인의 경제, 사회, 문화의 많은 영역에 초국가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면에서 재외한인은 모국과 거주국의 문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문화양식과 문화공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심리적인면에서 재외한인은 탈영토화된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재외한인의 특성과 모국과의 관계가 변하면서 재외한인을 연구하는 이론적 관점뿐만 아니라 연구대상, 주제, 방법론에서도 보다 다양화,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재외한인 연구가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적합적인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이주, 다문화, 소수자연구 등과 같은 인접학문분야와의 긴밀한 소통과 학제간연구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의 한인 이주의 역사는 1886년 6월 한·불간 우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1887년 발효된 이후, 일단의 유학생이 도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유학생은 홍종우(김옥균 암살자, 1890년12월 - 1893년 7월 체류)이다. 해방이후 카톨릭 신부 등을 중심으로 유학이 본격화되면서 재불 한인 학생회가 구성(1963년)되었다가 재불 한인회로 확대 개편(1967년)되었다. 한편 1975년 대한항공의 서울-파리 노선이 개통되면서 한국 기업의 현지 지사 설립이 본격화되고 유학생 등의 이주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2011년 말 현재 재불 한인의 총수는 약 12,684명(2011년 12월)에 이른다. 이 중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3,054명 이고, 체류자가 9,630명(유학생이 전체한인의 53%)에 이르고 있다. 장기체류증(long séjour)을 소지한 교민들은 대부분 요식업·여행업 및 소규모 무역업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유학생의 경우, 정규대학 이외에 예능계 학교나 어학연수생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는 별도로 프랑스 내 한국계 입양인은 약 14,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95년 입양인 단체인 “한국의 뿌리”가 결성되었으나, 회원 수는 300여명에 불과하다. 한편 조선족 체류자 250여명이 “조선족 협회”를 구성(2000년)하고 있다[2].

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해외 거주 (France, Toulouse) 한인 여성들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3] 현상학적 접근을 사용해 분석하고 있다.

현상학은 세계를 바라보는 이전의 상식적인, 문화적인, 과학적인 방식들을 타파하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실제 경험 혹은 연구참여자들의 실제 경험에 형태를 부여하려고 노력한다[4]. 그러므로 현상학적 연구에서 드러나는 현상의 본질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사용해 왔던 학문적 용어나 일상생활의 언어, 상용문구 등에 가두어 둘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표현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Toulouse 거주 한인 여성의 삶’에 대해 삶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그들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를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주요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자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참여에 동의한 Toulouse 시 중심과 외곽에 거주하는 30 - 50대의 한인 여성으로 전체 10명이다.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는 달리 표본이 얼마나 대표성을 띠는지 또는 연구를 일반화 할 가능성이 있는지 보다는, 얼마나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

공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5]. 질적연구에 있어 현상학적 접근은 근본적으로 연구대상을 다면적이고 심층적이며 빠놓지 않고 설명하려 하며 이를 '빈틈없는 설명(thick description)'으로 명명한다. 이런 점에서 연구대상의 숫자를 크게 하고 그것의 특징을 평준화하여 설명하는 양적 접근과 비교해, 참여자의 수 보다는 그들이 "경험"한 것의 깊이와 질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최대화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자 유의하였다.

연구참여 대상자는 Toulouse 거주 3년 - 33년에 이르는 한인여성 10명으로 30대 3명, 40대 6명, 50대 1명이며, 그 일반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France Toulouse에 머물러 있던 기간(2011년 9월 - 2012년 7월) 중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개념과 경험을 언어로 이야기하게 하는 심층면접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얻은 심층면접 자료는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원으로 활용되었다. 면담 횟수와 시간은 한 연구참여자 당 평균 2시간 정도 진행하였고, 평균면담 횟수는 2 - 3회 였다. 한편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질문지를 제공하고 답을 받았으며, 이후 면담장소로는 참여자의 허락 하에 학교(Université du Mirail, Toulouse)나 가정방문 또는 Toulouse의 한 가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구분	연령	직업	학력	자녀 수	결혼여부와 경제활동에의 참여	현 거주지
A (Choi I-S)	59	없음	고졸	4	미망인으로 경제활동을 한 적이 (거의) 없음. 기본적인 경제생활만을 유지. 세자녀는 성인으로 분가. 13세의 미성년의 아들과 생활. 아이의 부는 프랑스인이거나 따로 생활. * 가족수당 : 매달 90유로 기량을 Caf로부터 받음.	톨루즈(Tlse)
B (Kim J-M)	47	교사. 통번역사	대졸	2	결혼하여 독일에서 오랜 시간 거주 후 남편의 직장 이동으로 프랑스 거주. 남편이 Simens를 거쳐 Continental에서 근무.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 * 가족수당 : 둘째아이 앞으로 월 120유로.	톨루즈(Tlse)
C (Kim J-S)	45	(전직) 교사	대졸	없음	한국에서 중등학교 교사로 21년 봉직. 결혼(남편 프랑스인)과 함께 프랑스 거주 시작. 남편이 Grandes Ecoles출신으로 Airbus근무. 경제적으로 안정적. * 가족수당 : 없음.	톨루즈 인근 Colomiers(콜로미에)
D (Kim M-K)	44	통번역	대졸	1	학업(심리학) 중 현 남편(이스라엘인)을 만나 결혼. 남편은 심리상담 cabinet를 열고 있고 본인은 통번역일을 하고 있음. * 가족수당 : 없음.	톨루즈 인근 St-Orens (생도랑스)
E (Kim H-M)	44	없음	대졸	2	남편직장으로 프랑스 Tlse 거주. 전업주부 * 가족수당 : 둘째아이 앞으로 월 120유로	톨루즈(Tlse)
F (Kong E-W)	43	조각가, 통번역	대학 원졸	1	학업 중 현 남편을 만나 결혼. 남편은 심리상담 cabinet를 열고 있고 본인은 미술작업과 통번역일을 하고 있음. * 가족수당 : 없음.	톨루즈 인근 Muret(뮈레)
G (Jo S-H)	42	학생	고졸	없음	수녀원 입회로 프랑스에 올. 10여년 간의 couvent 생활을 접고 일반인의 삶을 살게됨. Institut Catholique에서 학업 중. 혼자지내는 노인을 돌보며(같이 저녁식사, 특히 주말) 숙식 제공받고 월200유로 받음. * 가족수당 : 없음	톨루즈(Tlse)
H (Kim J)	37	식당 운영	대졸	없음	결혼과 함께 남편과 프랑스로와 식당운영. 여러직종을 거쳐 한일식 식당(진단체)운영. * 가족수당 : 없음	톨루즈 인근 Colomiers (콜로미에)
I (Baek E-J)	36	학생	대졸	없음	결혼 후(남편 프랑스인) 프랑스 입국. 학업 후 직장을 구하려 함. * 가족수당 : 없음	톨루즈(Tlse)
J (Kang M-Y)	34	없음	고졸	3	남편 직업으로(외인부대 군인) 프랑스 입국. 자녀 출산과 육아에 전념. *가족수당 : 월 459유로	톨루즈 인근 Casrelnaudary (까스페노다리)

정집에서 진행하였다.

모든 심층면접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허락 하에 녹음 한 후 전사하였다.

한편,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라는 서약서를 면접대상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연구 종결 후에 확실하게 폐기될 것이다. 면접대상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해보면 ; 50대 1명, 40대 6명, 30대 3명이다.

3. 분석방법

현상학은 인간생활을 중심으로 한 '현상과 경험의 의미'를 찾으려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무엇인가 경험한 사람들이 겪은 경험의 의미가 일상세계와 관련지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학문이다[7]. 이때 현상과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개인의 의식 속에 주어져 있는 사태 그 자체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지향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개념화하는데 유용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반복 질문을 통하여 연구문제에 접근하면서 자료 및 분석에서 인식된 개념이나 기대 또는 틀을 사전제시하지 않는 것이 현상학적 접근의 전제조건이며 직관이 지식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대[8]. 질적연구의 스펙트럼을 주관성이 강한 연구와 객관성을 지향하는 연구의 양극으로 나누었을 때 현상학이 주관적 연구를 대변한다고 한다면, 근거이론은 객관성을 지향하는 연구에 속한다. 즉 현상학적 접근은 어떤 현상에 대한 정리된 생각, 즉 본질을 확인하고 구성하는데 관심을 둔다면 근거이론은 개념을 통해 범주를 만들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엮어내면서 이론을 구성하는데 목적을 둔다[9].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목표는 이론이나 모델을 개발하고 일반적인 설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중인 현상의 경험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 역시 귀납적 이론형성이 목적이라기보다 의미의 총체적 이해 및 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상학은 세계를 바라보는 이전의 상식적, 문화적, 파

학적인 방식들을 타파하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실제 경험 혹은 연구참여자들의 실제 경험에 형태를 부여하려고 노력한다[10]. 그러므로 현상학적 연구에서 드러나는 현상의 본질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사용해 왔던 학문적 용어나 일상생활의 언어, 상용문구 등에 가두어 둘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상학적 시행의 속성은 연구자의 인식, 개인적 측면들, 편견 등의 사전 장치 안에서 현상은 자체를 드러낸다는 것에 대한 사고와 개방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물을 윤(채)색하는 기존의 사실 혹은 명백함으로 인해 가능한 연구로 이어지는 결과물로 인해 당황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상학은 통상적인 해석들의 한계를 강하게 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국면은 아주 값진 것으로, 이는 경험의 기저에 대해서는 늘 다르게 문제들을 생각하게 하고 더 나아가 지칭할만한 단어들이 없는 것의 국면들을 구성하게끔 한다. 현상학은 이렇게 어두움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던 경험의 국면들을 별을 보게 하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반항의 힘을 가지고 있다[11].

즉각적인 인간경험을 표현하고 그 경험에 근접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면에서 詩作과 현상학의 글쓰기는 자주 비교된다. 시인과 마찬가지로 현상학적 글쓰기에 임하는 연구자는 하이데거(Heidegger)의 표현에 따라 “항상 마치 그 본질이 처음으로 표현되고 불러 일으켜진 것처럼” 글을 써 내려가야 한다. 메를로-퐁띠(Merleau-Ponty)도 현상학적 글쓰기[12]를 시 작업과 비교하면서 “세계의 본원적인 노래 속에 우리의 목소리를 참여시키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낮은 것을 ‘낮설게 하기’[13] 위한 언어의 변형인 것이다.

따라서 드러나는 경험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은 사회과학적인 혹은 사회복지적인 용어로 생각하고 글쓰는데 익숙해진 연구자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할 만큼 고되고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건 자신이 포착한 경험을 가능한 한 경험 자체에 가깝게 글로 표현하여야만 한다.

현상학적 글쓰기의 네 가지 기준으로는 진정성의 느낌을 창출하여 독자들을 사로잡는 ‘생생함’, 독자들이

그 현상을 그들 자신의 현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정확성', 현상의 감각미학적 성격을 전달하는 언어의 화려한 사용, 생생한 묘사, 의미와 세부사항의 색조를 통해 기술을 깊이 있게 하는 '풍부함', 기술을 통일시키고 기술에 우아함과 신랄함을 주는 단순한 표현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밝히는 언어의 경제적 사용에서 발견되는 '세련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현상학적 글쓰기는 연구참여자의 의식에 떠오른 현상을 독자들이 원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에 대한 연구는 미주와 극동 아시아 중심이었던 것이 사실이며, 연구의 양 또한 많지 않고, 대부분이 이주의 피적과 현황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해외로의 이주 후의 삶에 중점을 두어 의미의 복합체인 인간의 행위 의도와 동기 등을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여 통합적으로 해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몇 가지 구체적인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쳤다. 먼저 녹음된 테이프를 연구자가 여러 번 들으면서 필사된 내용과 어라나 다른지를 찾아 내면서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면담내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 필사된 내용을 파악하고 세분법에 따라 문장 혹은 문장의 다발을 의미구조 단위로 나누어보면서 그 부분의 의미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각 의미에 대한 진술들을 공통된 주제별로 묶어 따로 정리하였으며, 도출된 주제들을 비교분석하여 관련된 주제들과 구분되는 주제 등을 분리시켜서 현상에 대한 본질적 주제를 결정하고 이를 기술하였다.

III. 연구결과

1. Toulouse 거주 한인여성 삶의 경험과 그 상황

연구를 위한 면접에 참여한 여성들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크게 5영역과 13가지 중심개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섯 가지의 영역은 '한국에서의 교육경험의 정도', '결혼여부와 관계', '여가 및 문화생활', '경제생활 상황', 'Toulouse 생활의 장·단점'으로 나타났다.

1-1 한국에서의 교육경험의 정도

앞의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의 교육 경험 정도가 이곳 Toulouse에서의 일상적인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명의 면접대상자 중 한국에서 대학 이상의 교육을 경험한 여성은 7명이며, 3명만이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 중 3명(D, F, I 면접자)은 프랑스에서 학업을 계속하려는 계획 하에 입국한 경우이다.

연구참여자들의 학력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세 명의 고등학교 졸업자, 여섯 명의 대학 졸업자, 한 명의 석사과정 수료자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생활과 교육경험의 관계에 대한 생각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1-1-1 조금 더 공부했을 것을...

태권도 사범이던 남편의 가족초청으로 1979년에 프랑스에 들어왔는데,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의 초청을 기다리다가 프랑스에 와 타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었어요. 문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였어요.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아니어서 이곳의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해서, 이를 극복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지요. 또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태권도 사범이었던 면담자의 남편은 1984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내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 다행히 아이들이 자기를 앞가림은 해줘서. [사례 A]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프랑스 용병인 군인입니다. 제 나이에 벌써 아이들이 셋이에요. 큰 아이가 벌써 우리나라 식으로 치면 초등학교 2학년 이예요. 걱정은 아이들이 커나면서 제가 도움이 되어야 할텐데... 이것이 걱정이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아직도 불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게으름 때문인 것을 잘 아는데, 셋째가 너무 어려 이제서 시간을 내서 공부한다는 것도 쉬운 노릇이 아니예요. '프랑스로 오기 전, 아니 결혼 전에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저를 우울하게 합니다. [사례 J]

1-1-2 한국에서 얻은 학력이 무슨 소용인가?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경험하고 프랑스에 입국한 후,

표 2. 연구참여자의 학력 정도

구분	A	B	C	D	E	F	G	H	I	J
연령	59	47	45	44	44	43	42	37	36	34
학력	고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대학원졸	고졸	대졸	대졸	고졸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몇몇 주부들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다는 것이 Toulouse에서의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다.

한국에서 중등교사로 21년 동안 일했습니다. 지금의 프랑스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의 교직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지요. 오랜 시간 동안 교사로 일을 하다가 이곳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답니다. 때로는 제대로 된 선택이었나?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연애 시절 지금의 남편과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했었고, 결혼이 결정되면서 불어공부를 시작했지요. 이곳으로 와 Toulouse II(문과대학)에서 여전히 불어공부를 하고 있지요. 벌써 햇수로 3년째 불어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늘지 않아 자주 속이 상하네요. 한국에서 받았던 교육에 대한 회의 뭐 그런 것이 때론 머리 속을 맴돈답니다. [사례 C]

저도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결혼 전 직장을 가졌었지요. 남편이 이곳에서 직장을 얻어 아이들과 함께 Toulouse로 왔습니다. 이곳에 온지 3년째 되어 갑니다. 남편이 지금의 직장에서도 계속 있는 한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제게 있지요. 이곳으로 오기 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언어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영어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지요. 딸이 둘입니다. 우리 식으로 중2와 초등학교 4학년이랍니다. 아이들은 이곳에 와 몇 달은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이지요. 이곳에 온 이후로 아이들 학교에 보낸 후 문과대학의 어학코스에 2년째 다니고 있어요. 불어에 익숙해 지는데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듯 하네요.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주눅이 들다보니 한국에서 도대체 뭘 배웠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례 E]

1-1-3 현 상황에 충실하자!

분류 가능한 세 번째 집단은 한국에서의 교육경험 업무와 다소에 상관없이 본인이 선택한 현재의 상황에 충실하려는 이들이다.

결혼 후 독일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후 남편의 직장 이동으로 이곳에 왔지요. 대학에서 독일어를 전공해 독일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이곳에 오면서 ‘불어를 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언어 습득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리 많지 않았지요. 어쨌든 선택한 ‘살 곳’이었기에 불어공부를 시작했고,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인들과의 대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영어와 불어를 접했어서 이곳으로 이사한 후에도 학교생활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 B]

Montpellier로 유학 와 공부하던 중 현재의 남편(이스라엘인)을 만났습니다. Toulouse로 옮겨 와 심리학 박사과정에서 공부했습니다. 불어는 유학 전부터 준비했던 터라 언어로 인해 크게 힘들지는 않았답니다. 문제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이었지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역부족이라 생각하던 중 임신을 했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공부를 중단했지요. 지금은 심리상담 cabinet를 열고 있는 남편을 돕고 저는 통·번역 일을 찾아 일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과정을 계속할 생각은 이미 접었고,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려합니다. [사례 D]

1-2 결혼여부와외의 관계

해외 거주 30 - 50대 여성들에게 결혼여부는 같은 연배의 내국인 여성들과 비교해 조금은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을까? 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열 명의 연구참여자들 중 8명이 기혼이고, 한 명이 미혼이며, 한 명이 남편과 사별하였다.

1-2-1 그래도 결혼을 해서...

대부분의 기혼 여성들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생의 동반자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소중함에 공감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남편의 존재가 크게 느껴지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친밀감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견해짐을 느낀다. 많은 부분에서 부부 간에 공유하고 나누게 된다. 주변에 프랑스 친구들이 있으나 터놓고 무엇인가를 얘기

할 수 있는 이들은 역시 가족이라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결혼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사례 B]

해외여행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요. 한국에서의 교사생활을 정리하고 남편만 보고 이곳으로 왔답니다. 이곳에서 가족이라고는 남편밖에 없으니 어찌 생각하면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혼은 내 자신의 선택이었기에 지금의 생활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리기도 하지요. 앞으로도 잘 지내려 노력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진한 외로움이 '남편이 옆에 있다고'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례 C]

1-2-2 남편의 빈자리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남편이 태권도 사범으로 있는 이곳 Toulouse로 온 것이 1979년이었지요. 84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저세상 사람이 된 후 생활 자체가 막막했지요. 유복자인 셋째를 남편 사후에 출산했고, 생활을 했어야만 했지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4 - 5년 동안은 사람을 써서 도장을 운영하였지만 이후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나마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차등을 두지 않고 있는 프랑스 사회보장법의 덕이었지요. 어찌저찌해 아이들과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남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었지요. 나와 아이들에게 남편과 아빠는 없었던 것이지요. [사례 A]

1-2-3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느낌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 좀 다니다 그만두었습니다. 신체적 장애(경증의 소아마비: 이미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프랑스에서도 2 - 3 차례 수술을 받았다.)로 한국에서의 생활도 그리 편치는 않았지요. 수녀회를 통해 프랑스로 왔습니다. 10여년 간 Lyon 인근의 수도원 소속으로 수녀원에서 생활하다가 그곳을 나와 2009년 Toulouse로 왔습니다. 수도원에 있을 때는 혼자임을 느낄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주변의 거의 전부가 수녀님들 혹은 수녀원의 관계자들이었고, 대부분이 수련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정신적 공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원을 나와 Toulouse로 오면서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야 했고,

생활을 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 때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랜 수도원 생활과 신체적인 문제로 결혼은 머릿속에서 지운지 오래되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내 연배의 남편이 있는 여자들이 조금 달리 보이네요. 분명 부러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어보려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사례 G]

1-3 여가 및 문화생활

여성을 남성과 대등한 인간 주체로 여기는 시각에서 보면, 지금까지 인류의 문화는 가부장제 문화였고 여성은 그 문화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고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제 문화는 인류의 절반인 여성을 억압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인류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능을 막아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남성들이 발전시켜 온 문화는 분업화, 획일화, 전문화, 물상화를 특징적으로 한다는 분석대로, 현재의 인류문화가 안고 있는 비인간적인 요소들은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여성들의 참여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4]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문화에 접근할 때는 무엇보다도 남성과 여성의 생활세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틀 안에서 제외 한인 여성들의 문화생활의 정도를 분석하기로 한다.

1-3-1 경험할 여력이 없는 문화생활 혹은 여가

Toulouse 거주 33년이 되었지만 문화생활을 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아이들과 살아가는데 정신이 없었고, 지난 30년 넘게 내게 문화생활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란, 일년에 2 - 3번 혹은 3 - 4번 열 동네 사는 프랑스 친구와 같이 가는 영화관 정도. 그리고 어찌다 1 - 2년에 한 번씩 한국의 유명 예술인의 Toulouse 방문 시, 공연 관람하는 정도가 전부지요. 그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지난 11월(2011년)에는 정명훈 씨가 Orchestre de Radio France와 공연을 한다고 하기에 큰 맘 먹고 예매를 했었는데, 공연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많이 실망했었지요.

표 3. 연구참여자의 결혼 여부

구분	A	B	C	D	E	F	G	H	I	J
연령	59	47	45	44	44	43	42	37	36	34
결혼 여부	사별	기혼	기혼	기혼	기혼	기혼	미혼	기혼	기혼	기혼

또 이곳에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한인회장과 한글학교 교장을 했었지요. 그 직을 수행할 때 Toulouse 시에서 매해 5월에 개최하는 ‘아시아권 국가들의 축제’에 참가해 한국을 알리는데 힘을 썼던 기억이 있네요. 이런 정도가 내 문화생활의 전부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말로 해 보고 싶은 것은 여행이지만 비용의 문제로 쉽지 않은 노릇이지요. 어쩌다 여름 관광 시즌에 아르바이트 건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는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행이라기 보다는 일하러 간 것이지요. [사례 A]

제게는 문화생활은 업무도 못 낼 일인 것 같아요. 아이들 셋 뒤치다꺼리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지요. 그나마 한 숨을 돌리는 것이 일요일에 한인교회에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지역이 Toulouse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Castelnaudary), 군사 지역이어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나름의 여유시간을 갖는 것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 오전 Toulouse Mme LEE댁에 들려 장보고 저녁 같이 해먹고 다음 날 교회에 들려 예배보고 교회식구들 만나 수다 떨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사례 J]

문화생활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Institut Catholique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곳의 학비가 프랑스의 일반대학과 비교한다면 아주 비쌌습니다. 저는 제 생활비와 용돈을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경제적 여유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화생활이요! 제게는 궁허한 이야기지요. [사례G]

1-3-2 격조 있는 문화생활 향유에 대한 바람

독일에서 생활하다가 Toulouse로 온 것은 남편의 직장 때문이었지요. 저도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었지요. 이곳으로 와 하던 일이 없어지면서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했었지요. 지금은 가정에서 내 역할을 찾았지요. 아이들도 웬만큼 커 본인들의 일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프랑스인들과 함께하는 독서토론회나 흥미로운 주제의 Conférence가 있을 때 참여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한 번씩 모임에 갔다 오면 불어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웬만한 공연은 빠지지 않고 관람하려 하지요. 최근에는 Luchôn에 작은 빌라 한 채를 마련했답니다. 요즘은 주말이면 남편과 그곳에 가는 것이 일리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Food Forest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사례 B]

늦은 결혼하다가 한국에서의 교직까지 접고 이곳에 와 남편이 신경을 많이 써주는 편입니다. 2010년 3월 Toulouse에 와 시내에서 일 년가량 거주하다가 지금의 집을 구입해 이사를

했답니다. Toulouse 시내에 살 때는 남편이 일년치 티켓을 구입해 줘서 시간이 되는 한 많은 공연을 접할 수 있었지요. 프랑스 생활에 빨리 적응해 보라는 남편의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Colomiers로 이사 온 후에는 예전만큼 공연장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공연은 남편과 함께하지요. [사례 C]

저는 전공이 미술(조각)이어서 전공관련 문화생활은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을 와 공부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프랑스인, 심리학 박사) 결혼한 후 학업으로는 복귀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도 조각 작업은 계속하고 있고 틈틈이 통·번역 일을 하고 있답니다. 심리상담 cabinet을 열고 있는 남편은 태권도 메니아여서 한국문화를 프랑스에 전파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남편은 저보다 한국을 더 좋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례 F]

1-3-3 경제적인 문화생활의 향유

후주 여행 중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8살 연하의 남편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려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방문할 수 있는 박물관들이 얼마든지 있고, 정말로 필요하다 생각되는 곳에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방문합니다. 남편이 아직은 인턴으로 회사생활을 하고 있어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약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있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답니다. 저는 앞으로 공부도 더 해야 하고 이곳에서 직장을 잡아야하기 때문에 계획 하에 생활하려 합니다. 남편과는 여러 면에서 생각이 일치해 같이 문화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이러한 점에 감사하답니다. [사례 I]

1-4 경제생활 상황

여성이 가사노동 이외에 경제활동에 언제부터 참여하게 되었는가는 참여의 형태나 정도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의 변화가 있었을 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수렵·채집사회로부터 오늘날의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다. 여성의 경제활동에의 참여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산업화의 산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단계인 현대 독점 자본주의에서도 여성의 생산활동에의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요인은 좀 더 복합적이다[15]. 본 절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경제생활 상황에 대해 분석해 본다.

1-4-1 수입의 근거

연구참여자들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는 H의 경우로 남편과 함께 한·일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기혼여성들은 고정된 일을 갖고 있지 않으며, 월 수입원은 남편들의 월급이다. 금액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월 수입이 적어도 2000유로 이상이면 가족수당이 제공되지 않는다.

남편의 월급은 월 3000유로 정도입니다.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집 월세 내고 하면 뽀뽀한 생활이지요. 다행인 것은 둘째아이 앞으로 월 120유로가 가족수당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 돈을 쓰지 않고 모았다가 바캉스 때 여행을 가거나, 한국에 들릴 경우가 생길 때 보태는 용도로 사용하지요. [사례 E]

월 수입을 2000유로로 적었지만 이보다는 약간 상회합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 지금은 남동생이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지만, 동생이 본인의 일을 찾아 나가게 되면 고민되지요. 둘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좀 벅잡니다. 일을 많이 하면 수입이 늘어나지만 식당 일이 워낙 힘든 일이고, 프랑스에서는 자영업으로 큰 돈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만큼 유지하는 것이 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H]

공부를 더 하기 위해 1996년 프랑스에 왔고, Toulouse에는 98년에 왔습니다. 인문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지요. 남편은 박사학위를 받고 심리상담cabinet을 열고 병원과 연계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상담을 받아주고 있지요. 월 수입은 세 식구(남편과 아들)가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에 큰 비용이 나가는 부분은 은행 융자를 받아 집을 짓고 있어 가계경제는 긴축경제입니다. 저도 일을 찾아 꾸준히 통·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인

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제 수입은 일정치가 않고 가계에 보탬이 되는 정도지요. 주 수입원은 남편이지요. [사례 D]

남편이 Airbus에 근무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지요. 수입은 두 식구가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교사로 일 하다가 이곳에서는 전업주부의 생활을 하려니 답답한 부분이 많지요.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괜히 남편 눈치가 보이네요. 남편이 절대 뭐라 하지 않는데도 제 스스로의 자격자심인지?... 그런 것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사례 C]

남편이 군인이예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인거는 해요. 부식비 같은 것에 돈이 많이 들지는 않지요. 부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문제는 아이가 셋이고 앞으로 들어 갈 돈은 많은데, 앞 날이 걱정되기는 해요. 우리는 남편 월급이 적고 아이들이 셋이나 되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요. 이것저것 해서 가족수당으로 한 달에 460유로 정도를 받는답니다. 프랑스에 들어 온지 벌써 6년이 되었는데도 제가 붙어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일상사에서 남편이 옆에 없으면 불안해요. 혼란으로 타 지역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이제 저도 정신을 차리려 하고 있어요. 늦기는 했지만... 또 남편이 앞으로 4년 정도 더 일하면 제대를 하려해요. 이후에도 프랑스에 남아 있겠지만 어떤 직업을 갖게될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앞날이 불안하고 그래요. [사례 J]

1-4-2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하한선은?

연구참여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기혼의 여성들이다. 이들 중 프랑스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H 뿐이다. 나머지 여성들은 대부분이 가정주부로, 이들 중 2 - 3명은 본인들이 할

표 4. 연구참여자들의 월 수입과 수입원

구 분	월 수입	수입원
A	각종 가족수당 + 90유로 + 아르바이트 수입	넷째아이의 부가 CAF를 통해 전달하는 90유로, 가족수당
B	월 4000유로 + 둘째 아이에게 나오는 가족수당 120유로	남편[* 가족수당]
C	3800유로	남편[* 자녀 없음, 가족수당 무]
D	2500유로	남편[* 가족수당 없음]
E	3000유로	남편[* 가족수당]
F	3000유로	남편[* 가족수당 무]
G	500유로	본인의 아르바이트[* 가족수당 없음]
H	2000유로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 자녀없음, 가족수당 무]
I	1500유로	남편[* 자녀 없음, 가족수당 무]
J	1500유로 + 가족수당 총 459유로	남편[* 가족수당] [집보조금 : 123유로, 가족수당 : 147유로, 셋째 아이 보조금 : 189유로]

수 있는 일을 찾아(주로 통·번역) 본인의 경제생활과 가사에 도움을 주려하고 있다.

남편이 매 달 가져오는 돈이 3000유로예요. 적지는 않은 돈이지만 사실 많지도 않아요. 우리가 나와서 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가족들을 모른척 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부모님들은 많이 신경이 쓰이지요. 친정이나 시집식구들이 이곳으로 올 때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모아둔 것이 없으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일정액의 저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곳에서는 의료보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인데, 해외에서의 생활인지라 불안한 면을 늘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남편의 월급이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요. [사례 E]

남편이 지금은 인턴직이에요. Airbus에 들어가기를 바라지만 그곳도 예전과 달라 자리가 거의 없다고 하네요. 남편이 정규직을 구할 때까지는 짝퍽한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받는 월급은 월 1500유로 정도 하는데, 자리가 구해지면 지금의 배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절약에는 자신이 있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남편의 직장이 정해지면 저는 이곳에

서 약대를 가려해요. 입학 자체도 쉽지 않고, 공부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계속 생활하려면 전문직을 가져야 하겠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적극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녀의 남편은 2012년 9월 프랑스 중서부의 해안 도시인 La Rochelle에 위치한 항공회사에 정직원의 자리를 얻어 그녀와 남편은 La Rochelle로 이사하였다. [사례 I]

1-5 Toulouse 생활의 장단점

오랜 시간 동안 해외에서의 생활은 그 사회에 익숙해지거나 동화되어 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국에서의 생활이 그리움으로 남고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타지 생활에서 몸으로 맞닥뜨리는 장점은 무엇이고 불편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해 본다.

1-5-1 Toulouse 생활에서의 좋은 점

Toulouse와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열 명의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Toulouse 생활에서의 좋은 점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5. Toulouse 생활에서의 좋은점

구분/연령	Toulouse 생활의 좋은 점	비고
A 59	1. 사회보장제도 2.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B 47	1. 생활환경 측면(오염되지 않은 자연) 2. 교육환경	
C 45	1. 신선하고 저렴한 식료품 2. 자연친화적 생활 3. 안전한 사회시스템 4. 덜 경쟁적인 생활패턴	
D 44	1. 주변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점 2. 나이와 관계없이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점 3. 허례허식이 없는 점 4. 사람들이 소박하다.	
E 44	1. 삶에 여유가 있다. 2. 날씨가 좋다. 3. 여행이 용이하다.	
F 43	1. 소외된 이들에 대한 배려 2. 프랑스인들이 대체적으로 교양인이라는 점 3. 삶에 여유가 있어 편하다.	
G 42	1. 개인의 생활을 존중하는 점 2. 법규를 잘 지킨다는 점 3.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점.	
H 37	1. 타인에 대한 존중 2.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음.(자영업 조차도) 3. 匠人的(artisanal)인 것의 인정과 존중	
I 36	1. 복잡하지 않은 생활(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음) 2. 이웃들이 친절하다. 3. 삶에 여유가 있다.	
J 34	1. 생활에 여유가 있다. 2. 사회보장시스템이 좋다. 3. 교육환경도 좋다.	

위의 <표>의 내용을 정리해 그 공통점을 끌어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에 정신적, 공간적 여유가 있다.

둘째, 자연환경이 좋다.

셋째, 사회시스템이 안전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다.

넷째,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프랑스인들을 달리 생각하게 한다.

다섯째, 교육환경에 만족한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1-5-2 Toulouse 생활에서의 불편사항

열 명의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Toulouse 생활에서의 불편사항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표 6]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서비스(예 : 전기수리, 인터넷 설치, 배관공사 자동차 수리 등)가 한국에서 생

활할 때와 비교해 지나치게 느리고, 비용이 높아 서비스 제공자들을 가정으로 부를 엄두를 못내고 있어 이러한 점들이 생활 속에서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으로서 Toulouse에 거주하면서(이는 프랑스 전 지역이 마찬가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체류허가를 받는 등의 문제로 관공서의 공무원들을 대할 때 그들로부터 받는 시선과 서류의 양이 큰 불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오랜 Toulouse에서의 생활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음을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인들과 친구나 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조차 쉽지 않음을 호소하고 있다. 단 남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Toulouse에의 체류기간의 길고 짧음의 문제를 넘어 언어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작동하고 있다. 본 문제는 개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다.

표 6. Toulouse 생활에서의 단점

구분/연령	Toulouse 생활에서의 불편사항	비고
A 59	1. 사람이 그림다. 2. 아이들이 장성해 분가하고 난 뒤 더욱 외로움에 젖어 있다. 3. 한국 명절 때가 되면 진한 외로움을 느낀다.	
B 47	1. 모든 면에서 느린 서비스	
C 45	1. 가족, 친구, 한국음식이 그림다. 2. 물가와 인건비가 비싸 한국에서는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점 3. 관공서 관련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서류가 너무 많다.	
D 44	1.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가 힘들다. 2. 언어생활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3. 문화 차이로 인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	
E 44	1. 언어적 문제 2. 관공서 관련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서류가 너무 많다. 3.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어야 할 때 힘들다. 4. 일상생활 속에서의 서비스가 부족하다.(ex : 전기수리, 배관, 컴퓨터 수리 등등)	
F 43	1. 주변에 친척이 없다. 2. 구비서류가 지나치다. 3. 세금률이 너무 높다.	
G 42	1. 문화의 차이 2. 사고방식의 차이 3. 외국인에게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H 37	1. 가족의 부재로 명절 때 너무 외롭다. 2. 전문가들(예 : 회계사, 세무사 등)과 일을 할 때 언어장벽을 절감한다. 3. 배달문화가 없어 가끔은 답답하다. 4. 인건비가 비싸다.	
I 36	1. 언어적 문제 2. 취업문제(너무도 어렵고, 요구하는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 3. 가족을 향한 그리움	
J 34	1. 언어문제 2. 모든 것이 너무 느리다.(인터넷 설치, 전화설치, 수리서비스 등)	

2. Toulouse 한인여성들의 삶의 구조

앞 절에서 분석한 Toulouse 한인여성들의 삶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즉 다섯 영역 중 ‘한국에서의 교육경험의 정도’, ‘결혼여부와 관계’, ‘여가 및 문화생활’, ‘경제생활 상황’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드러내며 영향을 주고 있고, ‘Toulouse 생활에서의 장·단점’은 앞 네 영역의 삶의 경험의 결과물로 연구참여자들의 호·불호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구조화에서 읽어낼 수 있는 Toulouse 30 - 50대 한인 여성들의 ‘Toulouse 생활의 전망’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주어진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력이 높고 한국 혹은 그 외의 국가에서의 삶 속에서 전문직을 경험한 이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사례 : B, F, H, I)

둘째, 외국인으로서 프랑스 사회 내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자괴감은 학력과는 약간의 상관관계를 가질 뿐이다.(사례 : A, C, D, E, G,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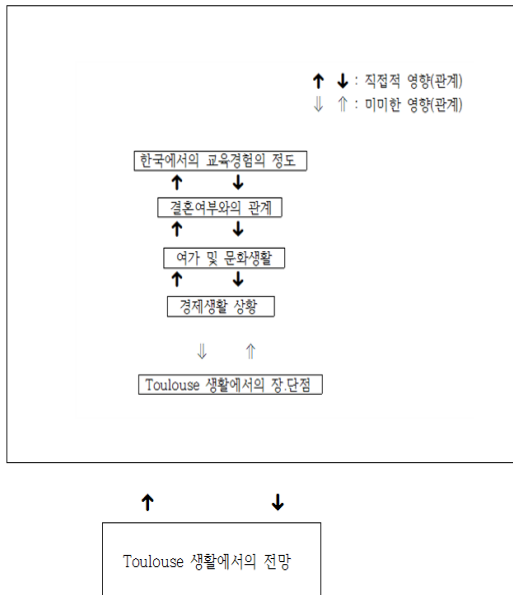


그림 1. 툴루즈 한인 여성들의 삶의 구조 도식

셋째, 언어의 문제는 자기개발에 소극적인 양상을 보인다.(사례 : C, E, J)

넷째, 한편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프랑스의 사회시스템으로 인해(예 : 가족수당) 경제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면도 있다.(사례 : A, J)

다섯째, 유럽의 여타 국가들과 비슷하게 프랑스에서는 미국식의 American Dream의 형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IV. 결론

현상학은 세계를 바라보는 이전의 상식적, 문화적, 과학적인 방식들을 타파하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실제 경험 혹은 연구참여자들의 실제 경험에 형태를 부여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현상학적 연구에서 드러나는 현상의 본질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사용해 왔던 학문적 용어나 일상생활의 언어, 상용문구 등에 가두어 둘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Toulouse 거주 한인 여성의 삶’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그들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를 재구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자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참여에 동의한 Toulouse 시 중심과 외곽에 거주하는 30 - 50대의 한인 여성으로 전체 10명이다.

연구를 위한 면접에 참여한 여성들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크게 5영역과 13가지 중심개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섯 가지의 영역은 ‘한국에서의 교육경험의 정도’, ‘결혼여부와 관계’, ‘여가 및 문화생활’, ‘경제생활 상황’, ‘Toulouse 생활의 장·단점’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에서 도출해낸 중심개념은 아래와 같다.

1) 한국에서의 교육경험의 정도

- (1) 조금 더 공부 했을 것을...
- (2) 한국에서 얻은 학력이 무슨 소용인가?

(3) 현 상황에 충실하자!

2) 결혼여부와외의 관계

- (1) 그래도 결혼을 해서...
- (2) 남편의 빈자리
- (3)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느낌

3) 여가와 문화생활

- (1) 경험할 여력이 없는 문화생활 혹은 여가
- (2) 격조 있는 문화생활 향유에 대한 바람
- (3) 경제적인 문화생활의 향유

4) 경제생활 상황

- (1) 수입의 근거
- (2)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가능케 하는 하한선은?

5) Toulouse 생활의 장단점

- (1) Toulouse 생활에서의 좋은 점
- (2) Toulouse 생활에서의 불편사항

이렇게 도출된 중심개념으로 Toulouse 한인여성들의 삶을 재구조화 해 그들의 생활을 전망해 보았다.

첫째, 주어진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력이 높고 한국 혹은 그 외의 국가에서의 그들의 삶 속에서 전문직을 경험한 이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둘째, 외국인으로서 프랑스 사회 내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자괴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과는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다.

셋째, 언어에 문제가 있는 이들은 자기개발에 소극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생활언어만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넷째, 최저생활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프랑스의 사회시스템으로 인해(예 : 가족수당 등) 경제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들은 기초생활은 유지하나 좀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기대를 자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다섯째, 유럽의 여타 국가들과 비슷하게 프랑스에서

도 미국식의 American Dream의 형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준비되지 않은 해외에서의 생활은 여러 측면에서 불안감을 낳으며, 특히 여성들의 일상생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의 도출은 해외로 이주한 그리고 이주하려는 한인여성들이 해외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가를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의 지원은 어떠한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 가를 생각하게끔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윤인진, “재미동포 사회의 현안과 정책적 과제”, 재외한인연구, 재외한인학회, Vol.18, 2007.
- [2] 주불한국대사관, 프랑스 개황, 2012. 참조. 프랑스 내 도시별 거주 한인의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다. 연구자는 프랑스 체류 기간 중 주불 한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당시의 ‘외교통상부’ 자료 이외의 것은 확보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Toulouse 거주 한인의 수나 여성한인의 수는 교민들 사이에 추정치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 [3] 재외 한인들에 대한 연구는 미국이민이 시작된 60 - 70년대 이후 주로 북미대륙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20세기 말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동남아 국가군에서 한국으로의 노동이주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이주자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재외 한인들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주로 학회지 「재외한인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전히 대부분의 연구는 그 대상이 미주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내용 상으로는 이주 현황과 이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재외 이주인들의 삶 자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측면에서의 재외한인 여성들에 대한 연구

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예 : 유연숙, “한국인 여성의 국제이동 성격에 관한 일 고찰”, 재외한인연구, 재외한인학회, 2003.)

- [4] M. Crotty, *Phenomenological Studies*, 1996. 신경림, 공병혜 공역, *현상학적 연구*, 현문사, 2001.
- [5] 이태진,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점검평가-기초보장 수급자 및 담당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7, 2007.
- [6] Catherine Meyor, “Le sens et la valeur de l’approche phénoménologique,” *Recherches Qualtatives, Hors Série, No.4*, p.114, 2007.
- [7]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4.
- [8] 강진숙, “촛불집회 참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3-24호, pp.7-48, 2009.
- [9] 윤건수, “질적연구의 다양성과 공공조직 연구의 확장”, *한국조직학회보*, 제5권, 제3호, pp.163-198, 2008.
- [10] M. Crotty, *Phenomenological Studies*, 1996, 신경림, 공병혜 공역, *현상학적 연구*, 현문사, 2001.
- [11] Catherine Meyor, “Le sens et la valeur de l’approche phénoménologique,” *Recherches Qualtatives, Hors Série, No.4*, pp.103-118, 2007.
- [12] M. Merleau-Ponty, *Phénoménologie de Perception*, Paris : Gallimard, 1976.
- [13] 낮설게 하기는 ‘인식의 일상의 틀에 박힌 양식들에 의해서 고취된 습관화의 과정에 대항하는’ 시도다. 그것은 ‘실제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실재를 낮설게 만드는 것’이다.(Crotty, 2001)
- [14] 김태현, 이문숙, *현대사회와 여성*, 파주 : 교문사, 2011.
- [15] 김태현, 이문숙, *현대사회와 여성*, 파주 : 교문사, pp.81-82, 2011 참조.

저 자 소 개

이 문 숙(Moun-Souk Yi)

정회원



- 1981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문학사)
 - 198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석사)
 - 1993년 12월 : L’Université de Toulouse I, France(정치학박사)
 - 2002년 9월 ~ 현재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여성복지